



박윤진 과장
업무팀 연수파트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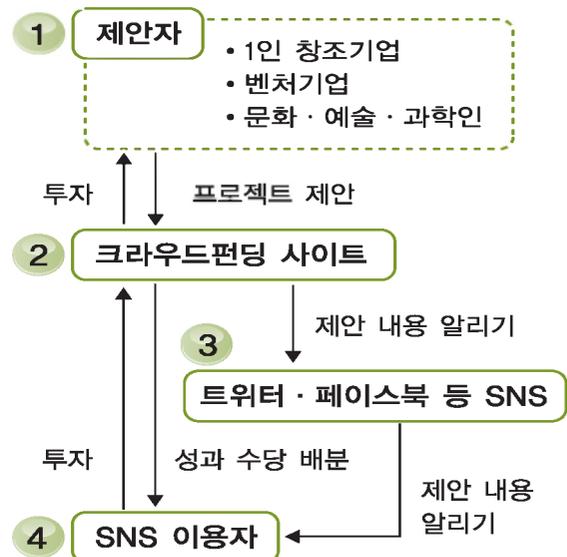
- ‘크라우드펀딩’이란 자금이 없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나 사회공익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일반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을 말함.
- 주로 영화·음악 등 문화상품이나 정보기술(IT) 신제품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많이 홍보되면서 ‘소셜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함.
- 크라우드펀딩은 ‘익명의 다수’에게 소액투자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투자와 홍보를 위해서는 커뮤니티 내에서의 좋은 평판을 통한 신뢰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함.

□ 크라우드펀딩의 역사

- 1997년 영국의 록그룹인 마릴리온이 인터넷을 통해 미국 공연을 위한 자금을 모금한 사례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는 2008년 1월 시작한 인디고고(www.indiegogo.com)를 들고 있음.
- 현재 가장 성공적인 크라우드펀딩은 미국의 킥스타터(www.kickstarter.com)임.
- 킥스타터는 자금이 없어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할

- 수 없는 사람들을 돕고자 2009년 4월에 설립되었음.
-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면 모금액을 모두 받지 못하는 (All or Nothing)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2012년 현재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면서 약 2만 4천개의 펀딩을 성공시키고 있음.
- 국내에서는 펀듀, 텀블벅, 굿펀딩 등 5~6개의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 네티즌 펀드라는 이름으로 영화 ‘반칙왕’, ‘공동경비구역 JSA’, ‘친구’ 등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사례가 있음.

〈크라우드펀딩의 흐름도〉



□ 크라우드펀딩이 주목받게 된 이유

- 최근 미국은 「JOBS(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법을 통과시켰는데, 동법은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있음.
- 동법은 투자자의 연수입 또는 순자산에 따라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2012년 5월 1일, 우리나라에서도 신생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13년 상반기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
- 다만, 사기성 투자모집을 방지하기 위해 모집금액을 10억원 이하 또는 자본금의 20배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이용한 파생상품도 허락하지 않을 예정이며,
-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의 투자금액을 최대 1천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투자위험에 대한 사전 안내도 의무화할 계획임.

□ 크라우드펀딩의 유형별 특징

- 엔젤투자형 :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통해 신생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유형
- '엔젤투자'는 일반적으로 아직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에서의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전문 투자자들의 영역이었으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소액 엔젤투자가 가능해짐.

[사례 : 아이팟 나노용 시계줄의 탄생]

2010년 시카고의 무명 디자이너 스콜 윌슨이 애플의 MP3 아이팟 나노를 시계처럼 활용할 수 있는 시계와 시계줄을 디자인한 후, 크라우드펀딩사이트인 킥스타터를 통하여 공개하여 순식간에 94만 달러(약 11억원)를 모금

- 엔젤투자형은 창업자에게 사전 고객 수요 예측과 본격적인 투자 유치라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으나, 현재 크라우드펀딩의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지분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움.

○ 자활지원형 : 인터넷 소액대출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개인의 자활을 지원하는 유형

- 돈이 있는 사람과 기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직접 연결하여 여유자금이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을 제공
- 온라인을 활용해 운영비를 절감하여 투자자에게는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대출자에게는 사금융보다 낮은 이자를 제공하는 형태가 일반적 (영국의 조파(Zopa), 미국의 비영리기관 키바(KIVA) 등)

○ 공익후원형 : 후원자들이 모금자의 취지에 공감해서 금전적 이익을 바라지 않고 모금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유형

- 후원자들은 자금을 지원할 뿐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역할도 하게 됨.
-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공익프로젝트의 홍보를 위해 비용의 일부를 크라우드펀딩으로 마련하기도 함.

□ 시사점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금제공자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좋은 평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핵심.

[채리티워터(charity:water)의 크라우드펀딩 성공 비결]

2006년 개발도상국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세워진 NGO 채리티워터는 후원자들과의 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으로 유명

- 기부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공개하고 후원자들과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여 온라인 소액기부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음
- 설립된 지 4년 만에 2,000만 달러를 기부받아 총 170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

○ 기업은 자금제공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들의 아이디어를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

- 신생기업의 경우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은 투자자 네트워크가 기업의 강력한 후원자이자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음.

※ 본 원고내용은 삼성경제연구소의 「SERI 경영노트」(2012. 6. 21, 제155호)에 발표된 '사람을 이어주는 투자, 크라우드펀딩'(홍헌민 선임연구원)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재구성한 것임. 

한토막의 여유



‘국민 후식’ 커피믹스의 원조생산국은 우리나라

커피믹스가 처음 나온 건 1976년 12월. 동서식품의 ‘맥스웰하우스 커피믹스’였다. ‘커피·크리머·설탕을 이상적으로 배합한 1회용 가용성 커피’라는 문구를 넣어 새로운 제품의 등장을 알렸다. ‘가용성(可溶性)’이란 물에 녹는다는 뜻이다. 커피믹스는 처음엔 길쭉한 막대 형태가 아니었다. 요즘의 티백 같은 넓은 직사각형 포장에 담겨 나왔다. 요즘과 같은 스틱 포장은 87년 출시됐다. 동서식품이 ‘동결건조’라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포장을 싹 바꾼 것이다. 동결건조방식은 섭씨 영하 40도 이하에서 원두를 농축·분쇄해 만드는 것으로 기술이 어렵고 설비도 기존보다 10배 비쌌다. 하지만 맛과 향을 원두 처음 상태에 가깝게 보존할 수 있다. 동서식품은 합작사인 미국 제너럴 푸즈의 지원을 받아 이 방식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현재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브랜드 ‘맥심’이다. 당시 가격은 10g짜리 20포 한 상자가 1,500원이었다. 현재는 같은 중량·개수에 3,300원이다. 최초의 커피믹스엔 커피와 설탕·크리머가 봉지 안에서 뒤섞여 있었지만 막대형으로 바꾼 뒤 세 원료의 층을 이루게 하였으며, 1996년에는 막대 뒷부분을 잡으면 설탕량을 조절 가능한 제품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커피믹스는 세계 최초 제품으로 기록됐다. 다른 나라에 없던 것을 한국이 가장 먼저 만들 수 있었던 데는 식물성 크리머인 ‘프리마’를 개발한 기술이 있었다. 세계 최초의 크리머는 61년 스위스 식품회사인 네슬레가 내놓은 ‘커피 메이트’다. 야자열매의 식물성 유지를 주원료로 만든, 커피맛을 부드럽게 하는 재료다. 본래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에 납품할 분유를 만들었던 미국 회사 ‘카네이션’의 기술이었는데 네슬레가 사들여 제품화했다. 우유에서 얻었던 기존 크리머에 비해 쉽게 상하지 않고 물에도 잘 녹았다. 동서식품은 이 같은 기술을 재빨리 들여와 1974년 크리머를 자체 개발했고, 2년 후 커피믹스라는 신제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 중앙일보에 게재된 내용임